



진종오 “황제 권총 케이스로 사기충천”

세계사격선수권 금·국제사격연맹선수위원 도전

獨 리모와, 세계 하나뿐인 한정판 선물
“10점은 먹고 들어가는 기분” 대만족
지명도 앞서 선수위원 도전도 자신감

‘권총 황제’만을 위한 한정판 총기 케이스 덕분에 장도에 오르는 진종오(35·kt)의 어깨는 으쓱 올라갔다. ‘사기충천한 진종오’는 스페인 그라나다에서 열리는 제51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6~20일)에서 금메달과 선수위원 당선,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각오다.

●진종오의 새로운 도전, 국제사격연맹(ISSF) 선수위원

세계선수권에 나서는 진종오는 3일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한다. 이번 대회에서 그는 남자 10m 공기권총, 50m 권총 개인·단체뿐 아니라 새로운 영역에도 도전장을 냈다. 4년 임기의 국제사격연맹(ISSF) 선수위원에 출마한 것이다. 7명의 선수위원 중 4명은 세계선수권에서 시니어 선수들의 직접투표로 뽑힌다. 선수위원장을 포함한 나머지 3명의 선수위원은 12월 독일에서 열리는 ISSF 집행위원회에서 지명한다.

8월 23일까지 ISSF 선수위원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후보자는 총 13명. 대한사격연맹 관계자는 “유권자 가운데서도 특히 사격의 본고장인 유럽 선수들이 절대적인 숫자도 많고, 잘 문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진종오는 지명도에서 앞선다. 2004·2008·2012년 3번의 올림픽에 출전해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를 목에 건 세계 최정상급의 선수이기 때문이다. 유권자 한 명당 최대 4명의 후보를 지목할 수 있어 비유럽권 선수들에게도 당선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쏟아지는 질문에도 친절한 답변…진종오의 SNS 소통

특히 진종오가 SNS를 통해 전 세계의 사격선수들과 소통하는 것도 강점이다. 워낙 대단한 업적을 쌓아가고 있는 선수이다 보니, 전 세계에는 진종오를 롤 모델로 삼은

선수들이 많다. 이들은 수시로 진종오의 SNS에 질문을 남긴다. 훈련방식부터 기록을 올리는 노하우까지, 궁금증도 다양하다. 훈련을 마치면 녹초가 될 때도 있지만, 진종오는 꾸준히 공부한 영어로 성의 있는 답변을 해왔다. 그것이 ‘제2의 진종오’를 꿈꾸는 선수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또 질문이 꼬리를 문다. “그 훈련은 나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 더 특별한 것은 없습니까?” 결국 진종오의 답변은 이렇게 귀결된다. “당신의 마음가짐과 생각이 중요합니다.” 이렇듯 엘리트 사격선수들에게 심리적 부분은 경기력과 직결된다.

●‘권총 황제’의 품격, 한정판 총기 케이스로 자신감 상승

세계선수권을 앞둔 진종오의 심리 기상은 쾌청하다. 본인의 표현대로 “자신감이 급상승했고, 기분도 좋아졌고, 위풍당당하기까지 하다.” 이유는 총구 직전인 2일, 여행용 가방 브랜드인 리모와(Rimowa)로부터 전 세계에 하나뿐인 총기 케이스를 선물 받았기 때문이다. 진종오는 최근 독일 리모와 본사와 연락을 취했다. “나를 위한 총기 케이스를 만들어줄 수 있겠느냐”는 요청에 리모와도 반색했다. 그 즉시 독일 본사는 한국 지사에 지시를 내렸다. 결국 한 달간의 제작기간을 거쳐 진종오만을 위한 총기 케이스가 탄생했다.

진종오는 “여성분들이 한정판 가방을 사기 위해 줄 서서 기다리는 것과 같은 심리라고 보면 된다. 다른 선수들은 갖고 있지 않은 총과 케이스를 갖고 있으면 더 자신감이 생긴다. 10점은 먹고 들어가는 것과 같은 기분이다”고 설명했다. 현재 진종오가 사용하는 10m 공기권총 역시 오스트리아의 총기회사 스테이어(Steyr)가 ‘권총 황제’만을 위해 한정판으로 만든 것이다. 스위스의 총기회사 모리니(Morini)도 50m 화약권총을 특별 제작 중이다. 황제의 품격에 걸맞은 아이템들과 함께, 진종오는 세계 선수권 금메달을 정조준하고 있다.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트위터@setupman11



‘권총 황제’ 진종오가 2일 인천선수촌에서 리모와가 특별 제작한 총기 케이스를 옆에 두고 포즈를 취했다. 진종오가 들고 있는 10m 공기권총 역시 오스트리아의 총기회사 스테이어가 한정판으로 만든 것이다. 세상에 하나뿐인 이 아이템들은 진종오의 자신감을 높이고 있다. 사진제공 | 리모와

사격대표팀, 세계선수권서 올림픽 쿼터 확보·AG 만점수능 노린다

64장 걸린 리우올림픽 쿼터 최대한 확보
AG 최종 모의고사…젊은선수 좋은 경험

최대한 많은 올림픽 쿼터를 획득하고, 2014인천아시안게임 전초전을 성공적으로 치르는 것이 목표다.

사격대표팀 1진이 스페인 그라나다에서 열리는 제51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6~20일) 출전을 위해 3일 출국한다. 1진은 공기소총, 소총, 권총, 트랩 선수 등이 주축이다. 주니어 선수들이 포함된 2진은 6일, 센터파이어·스

탠다드권총 선수들이 포함된 3진은 8일 장도에 오른다.

4년마다 한번씩 열리는 세계사격선수권은 사격에서 올림픽 다음으로 큰 이벤트다. 이번 대회에도 55개 종목(시니어 30개·주니어 25개)에 95개국, 2028명(주니어 포함)의 선수가 참가한다. 한국은 국가대표 48명, 주니어대표 16명 등 총 64명의 선수를 파견한다.

사격대표팀은 2010년 독일 뮌헨에서 열린 제50회 세계사격선수권에서 금 4개, 은 6개, 동 7개 등 총 17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사상 최

고의 성적을 거뒀다. 차기 대회(2018년 창원) 개최국인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도 영광 재현을 노린다. 한국에서 세계사격선수권이 열리는 것은 1978년 제42회 서울대회 이후 40년 만이다.

특히 이번 대회는 사격대표팀에게 2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로는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의 시작점이라는 것이다. 이번 세계사격선수권은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사격 종목의 출전 쿼터가 부여되는 첫 대회다.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출전 쿼터는 총 390장인데, 이 중 64장이 이번 대회에 걸려있다. 종목

별로 살펴보면, 남녀 공기권총과 공기소총에는 최대 6장의 쿼터가 국가별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대회가 인천아시안게임의 최종 모의고사라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사격대표팀 윤덕하(60) 총감독은 “세계선수권이 큰 대회임은 사실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아시안게임의 중요도도 높다. 일단은 아시안게임에 초점을 두고 훈련했다. 세계선수권은 종목이 많기 때문에 경기장 사용 일정이 빽빽하게 돌아간다. 그래서 충분히 훈련하고 실전에 임할 수 없다. 젊은 선수들에겐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 각각의 종목을 마치는 대로 귀국해 시차 적응과 인천아시안게임에 대비한 컨디션 조절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영희 기자

박기원호, 튀니지전 역전승

박철우 24득점 폭발…세계남자배구선수권 첫 승



한국이 2014 세계남자배구선수권 대회에서 튀니지를 꺾고 첫 승리를 따냈다.

2일(이하 한국시간) 폴란드 카토비체 스포틱 경기장에서 벌어진 대회 사흘째 B조 경기에서 박철우(사진)가 24득점하며 팀을 이끈 덕분에 튀니지에 세트스코어 3-1(24-26 26-24 25-21 25-18) 역전승을 거뒀다. 한국은 1세트 11-10에서 7연속 실점해 주도권을 튀니지에 넘겨줬다. 박기원 감독은 서브리시브가 흔들리자 리베로를 부용찬으로 교체하며 경기의 흐름을 돌려놓았다. 11-17에서 6연속 득점으로 따라잡았고 22-24에서 박승석의 블로킹 등으로 듀스를 만들었지만 상대의 오픈 공격과 블로킹에 세트를 내줬다. 양쪽날개 공격에서 득점이 모자랐다.

한국은 2세트부터 아시아 배구 강자로서 위력을 보여줬다. 2세트도 15-11에서 5연속 실점을 했지만 전광인을 대신해 교체 투입된 송명근이 활기를 불어넣었다. 24-24의 듀스에서 한국은 송명근의 한 박자 빠른 강타와 박철우의 터치아웃 성공으로 세트의 균형을 맞췄다. 3세트도 한국은 12-7에서 연속 6실점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박철우가 필요한 때마다 점수를 뽑았다. 20점 이후 박철우와 전광인이 알토란같은 2점씩을 뽑아주면서 25-21로 세트를 따냈다. 박철우는 2,3세트에 각각 7득점하며 한국의 주득점원 역할을 톡톡히 했다.

한국은 세계선수권대회 지역예선에서 한 세트도 내주지 않았다. 튀니지보다 공격 블로킹 수비에서 앞섰다. 4세트도 14-11에서 박상하의 2차례 중앙속공과 박승석의 이동공격, 전광인의 중앙 후위공격, 박철우 신영석의 블로킹이 이어지면서 20-13으로 달아나 쉽게 승패를 가를 했다. 24-18에서 전광인이 쿼오프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1984년 LA 올림픽 이후 튀니지와와 역대전적에서 9승1패를 기록했다. 한국은 3일 23시30분 핀란드와 B조 2번째 경기를 벌인다.

박기원 감독은 “그동안 경기력이 떨어진 박철우와 송명근에게 기회를 많이 주려고 했다. 매 세트마다 연속실점이 나오는 것과 스타트가 늦는 것이 문제다. 모든 선수들에게 끝고루 출장기회를 줘서 실전감각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B조 첫 경기에서 브라질이 3-0(25-21 25-19 25-17)으로 독일을 이겼고 핀란드는 폴 세트 점전 끝에 3-2(18-25 21-25 27-25 25-23 15-12)로 쿠바에 역전승을 거뒀다.

카토비체(폴란드) | 김종건 전문기자
marco@donga.com 트위터@kimjongkeon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 SL공사 탄소배출권 기부받아

2014인천아시안게임대회 조직위원회는 2일 송도 미추홀타워 조직위 회의실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와 업무협약을 하고 SL공사가 보유한 탄소배출권 12만 9500 CO2톤을 기부 받았다. 이는 인천아시안게임 예상 탄소배출량(13만996 CO2톤)의 99%를 상쇄할 수 있는 양이다. 조직위는 3월과 이번엔 기부 받은 탄소배출권과 나무 심기를 통한 탄소흡수원 확보를 통해 인천아시안게임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탄소를 모두 상쇄하고 탄소중립대회를 치를 수 있게 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환경상 조직위 사무총장을 비롯해 전현희 저탄소친환경위원장, 송재용 SL공사 사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北올림픽위원회 서한 보내와…참가인원 등 제시

2014인천아시안게임대회 조직위원회는 2일 북한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올림픽위원회 송광호 부위원장 명의의 서한을 환경상 조직위 사무총장 앞으로 보내왔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 서한에서 인천아시안게임에 참가할 북측 인원의 이동경로, 항공기 운항계획, 등불절차, 취재활동 및 기타 편의제공 등 남측에서의 체류와 활동에 관련된 입장을 제시했다. 또 북측 항공기가 9월 11일부터 6차례에 걸쳐 서해항로를 통해 북한선수단을 수송할 계획임도 덧붙였다. 조직위는 이에 따라 북측 입장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이르면 시일 내 통보하고, 최종 참가자 명단 확정 등 북한선수단의 대회 참가와 관련한 실무협의를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편집 | 좌현경 기자 hk7048@donga.com 트위터@hk7048

컴파운드양궁대표팀 “오기·설움 담아 금빛 화살 쏜다”

리커브양궁 선발전 막힌 현역들의 새 도전
윤소정 “AG서 컴파운드 이름 알리고 싶다”

세계를 주름잡던 한국소트트랙 1세대는 대부분 스피드스케이팅에서 빛을 보지 못해 전향한 선수들이었다. 펜싱에서 여자 사브르가 처음으로 생겼을 때도 플뢰레와 에페에서 우수 선수들의 빛에 가렸던 사람들이 종목을 바꿨다. 이제 여자 사브르는 국제무대에서도 성적을 낸다.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선수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된다. 2014인천아시안 게임에서 한국양궁의 신화를 이어갈 컴파운드대표팀 역시 그렇다.

한국리커브양궁은 단연 세계 최강이다. “국내 대표선발전 통과는 올림픽 금메달만큼이나 어렵다”는 얘기도 나온다. 자연히 현실의 벽에 가로막힌 선수들이 생겨난다. 이들은 컴파운드양궁을 통해 현역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었다.

컴파운드는 흔히 익숙한 리커브 활과는 달리 활의 양 끝에 도르래가 달렸다. 상대적으로 활을 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미국에선 생활스포츠로서도 각광을 받는다. 남자컴파운드대표팀 양창훈(현대모비스 감독) 코치는 “미국에선 양궁용품점에 가면 80%가 컴파운드 관련 상품이다. 컴파운드 인구만 100만명을 헤아린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설명했다. 미국양궁의 간판 브레디 엘리슨 역시 컴파운드로 활을 접한 뒤 리커브로 전향했다.

한국에선 컴파운드의 역사가 짧다. 대한양궁협회 서지원 전무이사는 “국내에선 2002년 전후 처음 도입됐다. 10년 경력인 남자컴파운드대표팀의 만형 최용희(30·현대제철)가 사실상 1세대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김종호(20·이상 중원대)는 컴파운드 활을 잡은 지 이제 3~4년 남짓이다. 그러나 리커브에서 기본기를 탄탄히 다졌기에 컴파운드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다.

한때 설움을 겪었던 이들은 이제 오기의 화살을 쏜다. 여자컴파운드대표팀 윤소정(21·울산남구청)은 “국제대회에 나가면 컴파운드 리커브와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인천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컴파운드를 많이 알고 싶다”고 밝혔다. 인천대회에서 처음으로 아시안게임 정식종목



2014인천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노리는 컴파운드양궁대표팀. 왼쪽부터 최보민(청주시청), 김윤희(하이트진로), 석지현(현대모비스), 윤소정(울산남구청·이상 여자대표팀), 양영호(중원대), 민리현(현대제철), 김중호(충원대), 최용희(현대제철·이상 남자대표팀). 사진제공 | 대한양궁협회

으로 채택된 컴파운드양궁에는 남녀 개인·단체 총 4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다. 대한양궁협회는

2개 이상의 금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트위터@setupman11